

## 근대 한시에 나타난 중국 ‘단동’의 주요 공간과 시적 표상 고찰 -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

한길로\*

1. 서론
2. 역동적으로 부상하는 근대 항구 도시: 단동 전경
3. 옛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고토(故土)이자 고토(孤土)  
: 고려문(高麗門)
4. 유민(遺民)의 애환과 향수로 점철된 절의의 공간  
: 성신태(誠信泰)와 접리수(接梨樹)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전환기 중국 단동(안동)에서 창작된 한시 작품들을 폭 넓게 살피면서 작품 속에 담긴 당지의 공간적 심상과 그 표상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작품이 탄생된 주요 공간을 ‘단동 전경·고려문·접리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동 전경에서 한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다른 아닌 ‘압록강 철교’였다. 압록강의 수려한 절경 속에 자리한 압록강 철교를 본 한인 문인들은 서구 기술문명의 위용을 체감하며, 단동을 역동적인 근대 항구 도시로 묘사했다. 또한 그곳의 고려문(책문)은 한민족의 고대사를 다시금 회고하게 만들었고 황폐해진 공간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에서는 작금의 무기력한 현실을 상기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었다. 상점 성신태(誠信泰)와 접리수(接梨樹)를 배경으로 창작된 시에는 이역에 머물며 절의를 지키고 조국의 독

\* 길림대학교 한국(조선)어학과 부교수(phiosmind@jlu.edu.cn)

립을 도모해 보려는 ‘재중(在中)’ 유림의 삶과 그들을 방문한 ‘국내’ 유림의 복잡한 감정이 표출되었다. 요컨대 ‘한반도’라는 감시와 통제의 공간을 벗어난 이들의 작품에는 자신의 ‘주체’적인 내면이 적극 표출되었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기행시와 수창시의 특수한 일면을 잘 담고 있었다. 즉 단동은 한국 한문학의 영토를 확장하는 동시에 한학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고자 분투하고 있는 당대 문인의 내면을 투명하게 담고 있는 주요 공간으로, 이들 작품은 근대 한문학의 주목할 국면이라 할 수 있다.

\* 주요어: 단동, 고려문, 성신태, 접리수, 근대한문학

## 1. 서론

압록강 너머의 ‘가까운 이역’ 중국 단동(丹東)<sup>1)</sup>은 과거부터 한민족에게 상당히 특수한 공간으로 인지되었다. 대단히 가깝다는 지리적 인식과 함께 고구려의 고토라는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는 공간이기도 했다.<sup>2)</sup> 또한 조선시대 연행사에게 이곳은 이른바 ‘중화’ 문명이 시작되는 입구로서 처음 마주한 이역의 산천이었다. 즉 조선 시대 이곳은 성경(盛京) 심양에 이르는 첫 길목으로서 ‘구련성(九連城)·탕산성(湯山城, 湯站)·책문(柵門, 高麗門)’에 이르는 봉금지대였지만, 낯설지 않은 이역 산천의 풍경 속에서 첫 노숙이 이뤄진 공간이었다.<sup>3)</sup>

연행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소위 ‘동팔참’의 첫 구간이었던 이곳에서, 상당수의 연행사들은 ‘이역감·친근감·현실에 대한 고뇌감’을 느끼기도 했다.<sup>4)</sup>

1) 참고로 현재의 지명 단동(丹東)은 1965년부터 사용되었다.

2) 현재 단동시에는 고구려 시기 축조된 것으로 비정되는 박장성(泊灼城, 일명 호산산성(虎山山城)·소성자산성(小城子山城, 일명 정정산산성(城頂山山城)·오골성(烏骨城, 일명 봉황산산성(鳳凰山山城)) 등이 현전하고 있다.

3) 이철성, 「조선 후기 鴨綠江과 柵門 사이 封禁地帶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289쪽.

4) 이성형, 「燕行詩에 나타난 ‘東八站 區間’ 認識樣相 考察」, 『漢文學論集』 35, 근역한문학회,

하지만 1876년 봉금정책의 해제와 함께 이곳이 '안동현(安東縣)'으로 설정되고 또 1903년 개부(開埠)를 통해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인식에는 상당한 균열이 발생했다. 즉 조선말기의 혼돈에 이어 대한제국의 식민지화가 가시화 되면서 이곳은 잠시 스쳐가는 경유지 이상의 의미로 각인되기 시작한다. 더욱이 1911년 압록강 철교가 개통되면서 안동은 경의선과 연결되어 보다 접근이 용이한 '근대' 도시이자 주요 '이거지(移居地)'로 인식되었다.

근대전환기 한국인의 본격적인 단동행은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기근과 빈핍을 피해 도강을 택한 농민층이었지만, 식민지가 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고 또 자정과 결신(潔身)을 도모하려는 유림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sup>5)</sup> 또 이곳을 기행의 대상으로 삼은 인물들도 상당했다. 이러한 시대 배경은, '단동'이라는 공간에 대한 다층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즉 근대전환기 이곳은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 새로운 정착을 시도하려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장소이면서, 조국의 독립을 보조하는 근거지이자 유교적 대의와 결신에 헌신하려는 이들의 수도처의 면모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이들의 정주는 동료들의 방문을 유도했는데, 이를 통해 이곳에서는 상당수의 기행시와 함께 수창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이는 곧 단동 지역이 근대전환기 한국한문학의 유의미한 영토로 새로이 개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단동이 사실상 저물어 가고 있던 한국한문학 전통이 새롭게 이식되고 있던 '이역 아닌 이역'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단동 지역을 배경으로 창작된 한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당시 이들의 정착지였던 안동현 접리수(接梨樹)에 머물렀던 '인물'들에 집중되어 있었다.<sup>6)</sup> 대표적인 인물로는 수파(守坡) 안효제(安孝濟, 1850~1916)<sup>7)</sup>·경재(耕

2012, 130~140쪽.

5) 한인들의 집단이주에 대해서는 1845년을 기점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평안북도 초산(楚山)의 80여 호의 농민들이 관전현(寬甸縣) 일대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후 1860년 한반도 북부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이주 한인의 수는 크게 증가했고 1910년을 전후로 의병을 포함한 유림 층의 이주가 확대되었다고 전한다. 실제로 1905년 안동과 인근 도시까지 포함한 한인 인구는 1,190호 4,290명이었지만, 10년 뒤인 1915년에 이르러 현 안동시 관전현(寬甸縣)만의 인구가 이미 2,040호 11,307에 육박했다고 한다. (丹東市民族宗教事務委員會民族志編纂委員會(編), 『丹東朝鮮族志』, 遼寧民族出版社, 2001, 6~20쪽.)

6) 접리수의 정착 과정과 주요 인사에 대한 사실은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룬다. (서동일, 「1910년

齋) 이견승(李建昇, 1858~1924)<sup>8)</sup>·대눌(大訥) 노상익(盧相益, 1849~1941) 및 소눌(小訥) 노상직(盧相稷, 1855~1931) 형제<sup>9)</sup>·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sup>10)</sup> 등이 있다.<sup>11)</sup> 기존 연구는 이곳으로의 정착을 시도했던 이들 개인의 내면·공간인식·현실 대응 등에 집중하며 이를 중점 검토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다만 각 개인을 넘어 당대 유림들이 공인(共認)하고 있던 단동이라는 ‘공간’ 인식의 구도를 조명하고 동시에 이곳을 기행의 대상으로 삼고 방문한 근대 문인의 작품으로까지 확장하여, 보다 종합적인 지평에서 조망하려는 시도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단동’이라는 공간은 국내를 벗어난 ‘재중(在中) 유림’<sup>12)</sup>들이 가장 먼저 정착하며 공동체를 꾸민 삶의 장소이자 터전이었기에, 이곳을 배경으로 창작된 한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

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접리수 한인촌 형성, 『한국사연구』 171, 한국사연구회, 2015, 277~317쪽.)

- 7) 이은영, 「수파 안효계의 서간도 망명과 우국시」, 『한문학보』 25, 우리한문학회, 2011; 황명환, 「수파 안효계의 한시에 나타난 만주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 8) 호광수, 「이견승의 망명 한시에 나타난 상황성」, 『중국인문과학』 34, 중국인문학회, 2006, 479~498쪽; 안영길, 「경제 이견승의 삶과 문학」, 『우리문학연구』 39, 우리문학연구회, 2013, 117~141쪽; 이은영, 「경제 이견승의 망명 전후 매화시 변화 양상 연구」, 『한문학논총』 47, 근역한문학회, 2017, 187~211쪽.
- 9) 이희목, 「小訥 盧相稷 漢詩 研究-〈辛亥記行〉을 中心으로-」,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525~550쪽; 「大訥 盧相益의 亡命生活과 遺民詩」,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1105~1129쪽; 이은영, 「大訥 盧相益의 亡命 意義 研究」, 『동양한문학회』 37, 동양한문학회, 2013, 189~217쪽.
- 10) 한길로, 「한계 이승희의 재만 시기 한시 고찰」, 『어문논총』 95, 한국문학언어학회, 2023, 189~213쪽.
- 11) 이외에도 노상익과 안효계의 문학을 동시에 고찰한 연구와 상술한 인물들의 시문학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정경주, 「20세기 초 西間島 亡命 文學의 한 斷面—大訥과 守坡의 경우」, 『문화전통논집』 2,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137~160쪽; 이은영, 「20世紀初 儒敎知識人의 亡命과 漢文學: 西間島 亡命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76쪽.)
- 12) 본고에서 언급한 ‘재중(한인) 유림’은 다양한 정치적·현실적·개인적 동인에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유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의병·정치적 망명·독립운동·공교(孔敎)와 같은 유교 공동체 결성·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중국으로 이주한 유림을 포괄하며, 국내에서 활동한 유림들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한길로,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2022, 155~180쪽.)

는 이 시기 한문학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이다.<sup>13)</sup>

이러한 문제의식 하, 본고는 단동에서 창작된 한시 작품들을 폭 넓게 살펴 면서 이들의 시문학 속에 담긴 단동의 공간적 심상과 그 표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작품이 탄생된 주요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진술할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만주' 혹은 '서간도'라는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 아닌 '단동'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기행과 이주를 고려하며 이곳을 방문하거나 국난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한 '근대 전통 문인'들의 삶과 그 내면을 조명하는데 기여하려 한다. 또한 단동 역시 역외(域外)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한국한문학의 공간임을 환기시킴으로써, 근대 한문학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는데 일조하려 한다.

## 2. 역동적으로 부상하는 근대 항구 도시: 단동 전경

상술한 것처럼 압록강 철교의 개통으로 인해 단동(당시 지명은 안동)이 직접 한반도와 연결됨에 따라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의 발길은 더욱 잦아졌다. 열차에 몸을 실은 한인들의 상당수는 이 일대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농민들이었다. 1913년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안동현부터 대고산성(大孤山城)에 이르는 지역 범위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647명, 여성이 334명으로 약 천여 명에 육박했었다고 한다.<sup>14)</sup> 이들 농민들을 제외한 한인들은 주로 독립운동에 뜻을 세운 인사들과 이민족의 지배를 피해 이곳으로 이주하여 자정을 도모하려던 유림 인사들이었다. 또한 근대를 상징하는 '열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이역인 중국을 방문하여 그 실물을 확인하려는 인물들도 상당했다. 근대 문인에게 있어 중국은 '중화(中華)'의 지기(地氣)를

13) 본고에서 연구의 시기를 1910~1920년으로 한정할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10년대 중국으로 이주하여 활동한 인물들은 1920년 이후 상당수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또 그곳에서의 한인촌 개척 사업에도 난항이 이어져 구축해 온 공동체는 사실상 해체의 수순으로 나아갔다. 하여 현재 1920년대 이후 재중 지역에서의 한문 작품들은 극소한 실정이다.

14) 『每日申報』, “安東縣鮮人農況”, 1913.07.23.

간직한, 여전히 중요한 지적·문화적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연행사들에게 안동이라는 공간은 폐쇄된 미지의 영역으로 인지되기도 했었다. 1828년 이곳을 방문한 연행사의 기록, 즉 “압록강에서 서쪽으로 책문(柵門)까지의 120리는 교계(交界)가 되는 곳이므로, 사람이 살지 않고 산림도 그대로 두어 풀이 한 길이나 자랐고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언급처럼 대단히 황량한 땅으로 언급되기도 했었다.<sup>15)</sup> 하지만 이 시기 안동은 국경 너머의 역동적인 근대 도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한계 이승희가 “동양 제일의 현이라 할 만하다.”라고 칭할 만큼 그 변창은 상당했었다.<sup>16)</sup> 안동의 전경 가운데 이들에게 특히 눈에 띄는 풍광은 바로 단연 ‘압록강 철교’였다. 그럼 철교의 실물을 처음 접한 뒤의 소회를 담고 있는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압록강 철교에 도착해보니 다리의 만들새가 매우 장엄하였다. 나라를 통하는 차들의 운행은 강과 만나며 다리에 머무르는데 강의 크기는 나라의 으뜸으로 다리 또한 그러하였다. 다리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일 중앙에는 차들이 다니고 양 주변에는 사람이 다니며 중간과 곁을 모두 철제 난간으로 막아 두었고 다리 아래에는 큰 배와 군함들이 운집해 있었다. 매일 두시가 되면 기계가 다리의 중심까지 나아가 움직이는데 그 중앙의 한 교가(橋架)를 걷어 올리는 것이 마치 문선(門扇)을 여는 것 같았다. (이때) 주범(舟帆)을 지나 가게 하는데 이미 지나가도 재빨리 처음과 같았으니 기이함을 다하였고 숨씨도 극도로 좋았다.”<sup>17)</sup>

인용한 문장은 1912년 학문적 동지이자 인친(姻親)이었던 한계 이승희를 만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북만주 및 러시아까지 방문하고 돌아온 회당 장

15) 이철성, 앞의 논문, 286쪽.

16) 李承熙, 『韓溪遺稿』 卷1, 「發北京行」, “安東縣在鴨綠江西岸, 元寶山下舊屬兩界閑地, 清咸豐未開荒, 今成鉅邑, 日人連鐵路于滿鮮橋江上, 擬東洋第一割縣.” (밑줄 필자)

17) 장석영, 『遼左紀行』, “(2월 4일) 至江橋, 橋之作, 儘壯矣. 通國車行, 遇江輒橋之, 江之大, 甲於通國, 橋亦如之. 橋三, 最中通車行, 兩旁通行人, 中及旁, 皆作鐵欄以蔽, 橋下舸艦雲集, 每日二時, 以機就橋腹活動之, 揭起其中央一架, 如門扇之開. 教舟帆過去, 既過輒如初, 其窳奇極巧.” (원문은 윤병석, 『요좌기행 해설』, 『사학지』 8, 단국대학교 사학회, 1974, 141쪽을 재인용 했다.)

석영(晦堂 張錫英, 1851~1926)이 묘사한 압록강 철교의 면모이다. 인용문에는 철교의 장엄한 외관과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이곳의 활력을 체감하는 그의 내면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1913년 안동을 방문한 후산(厚山) 이도복(李道復, 1862~1938) 또한 개폐식 압록강 철교를 “모두 천하의 기관(奇觀)”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당시 유럽들에게 압록강 철교는 안동을 변화한 도시 공간으로서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도시 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더불어 이국적인 이곳의 풍광은 과거 고사(高士)들의 절의 또한 다시금 환기시키며 문인의 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 안동현 安東縣

사흘 만에 다시금 압록강 다리를 건너니	三日重經鴨水橋,
여정(旅情)과 시상(詩想) 모두 아득해지누나.	旅情詩思兩迢迢.
산 따라 세워진 벽축(壁築) 날아 움직이듯 어지럽고	沿山壁築紛飛動,
대지를 가로지르는 기차 저돌적이고 씩씩한 기세로다.	劃地煙車勢突驍.
흰 새들 번두리로 날아가니 멀리 햇빛 밝아오고	白鳥去邊明遠照,
푸른 산 다한 곳엔 차가운 조수 일어나누나.	靑山盡處起寒潮.
요양엔 높으신 은자들 많다 들었거늘	遼陽聞說多高隱,
검은 갓을 쓰신 어떤 이 멀리서 만나자 부르신다네.	皂帽何人遠見招. <sup>19)</sup>

인용한 시는 진주 출신의 근세 명유(名儒)이자 문장가로서 변명만·조공섭·정인보 등과 교류하며 주변화 되고 있던 한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던 회봉(晦峰) 하겸진(河謙鎭, 1870~1946)의 첫 중국체험을 담고 있는 시이다.<sup>20)</sup> 식

18) 李道復, 『厚山集』卷20, 「紀行程曆」, “(癸丑)宿新義州, 白孝甲旅館孝甲款待焉, 渡鴨綠江開閉橋, 儘天下奇觀也. 抵泊于遼東聚寶街訪孟溥淳旅舍, 逢趙西川泰文, 泰文方遊北京而歸, 言北京被兵, 中原大亂, 某遂不得前進還.” (밑줄 필자) 참고로 이도복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안 지역에서 활동한 근대 유학자이다. 연재 송병선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에게 배웠으며 정재규(鄭載圭)·전우(田愚) 등과 교류했다.

19) 河謙鎭, 『晦峯遺書』卷3.

20) 김진균, 「식민지시기 京鄕 한학자들의 교류」, 『한문학논집』 60, 근역한문학회, 2021, 277쪽. 참고로 하겸진은 1913년 봄 단둥을 방문했고, 봉천까지 유람할 계획이었지만 노부모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일정을 바귀 귀국했다. (『晦峯先生年譜』, “(癸丑(1913)春, 與鄭進十麟錫趙孝謹, 作中國安東行. ……渡清川江, 至安東縣, 遊元寶山, 自此至奉天爲一日程, 而先生以親老

민지라는 시대적 환경도 있지만 스스로 '본인은 본래 유람(遊覽)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이름난 도회·빠어난 누각·좋은 산수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별안간 옷을 걸어붙이고 한 번 가보리라 생각했었다.'<sup>21)</sup>고 할 만큼 기행은 그에게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sup>22)</sup> 위의 시는 근대를 상징하는 기차를 타고 빠르게 당도할 수 있게 된 이역의 땅 안동에 다다른 그의 내면을 생생히 담고 있다. 당시의 풍경 속에서 그의 내면에는 여정(旅情)과 시사(詩思)가 동시에 일렁이게 되는 데 이윽고 그의 시선은 주변의 풍광과 어우러진 벽축과 용맹하게 달려가는 열차를 응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흰 새와 푸른 산이라는 청백(淸白)의 색깔이 조화로이 공존하는 이곳은 과거 백이·숙제의 고사가 간직된 곳이자 관영(管寧, 158~241)이 절의를 지키며 후학 양성에 전념했던 의기가 남아있는 장소였다.<sup>23)</sup> 이렇듯 그에게 처음 마주한 안동은 빠어난 풍광과 근대 문명이 공존하면서도, 과거의 의기(義氣)까지 함께 간직한 공간으로 각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일대를 한 번에 굽어볼 수 있는 원보산으로 향했다.

#### 원보산에서 노닐다 遊元寶山

나의 행차가 중화의 세계까지 이르렀으니	我行中華界,
원보산은 바로 초입에 있다네.	元寶是初有.
여러 기이한 절경을 실제 응접코자	應接多奇絕,
말 세워두고 오랫동안 바라보노라.	立馬諦看久.

思歸益切，遂回轍。”

- 21) 河謙鎮, 『晦峯遺書』 卷28, 「記遊」, “余性本喜遊, 聞有名都勝樓好山水, 輒思拂衣一往.”
- 22) 근대전환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지식인의 유람은, 곧 현실에 대한 비타협 의지의 발로이기도 했다. 다만 하경진은 기행을 누구보다 즐겼던 인물로 15차례에 걸쳐 전국을 기행했다. 26세 때 금산(錦山) 기행이 첫 출발이었고 그 마지막은 73세 되던 1942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김기주, 「회봉 하경진의 학문 활동과 성리학적 특징」,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99~100쪽.)
- 23) 관영(管寧)은 중국 삼국(三國) 시기의 위나라의 문인이자 고사(高士)이다. 황건적(黃巾賊)의 난리를 만나 요동으로 피난하여 항상 검은 모자에 붉은 배옷을 입고 은거하였다. 그곳에서 시서(詩書)를 강론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피난 온 백성들을 교화시키며 명성을 얻었다. 나무 길상에 50년 동안 꿰어앉을 뿐 다리를 퍼지 않았는데, 훗날 무릎이 닿은 지점이 모두 뚫어졌다는 고사가 전한다. 더불어, 함께 공부하던 지우가 고관대작의 수레가 지나가자 책을 덮는 것을 보고 함께 쓰던 방석을 갈라 절교했다는 “管寧割席”이라는 일화도 전한다. (『世說新語』, 「德行」)

학의 들판을 눈썹 들어 볼 적에	鶴野上眉際,
압록강은 오른쪽으로 흘러들고	鴨江行■右.
은은히 절집의 종소리 떨어질 때	隱隱寺鍾落,
잇달아 전하(電舸)가 내달리는구나.	聯聯電舸走.
오래된 나무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겠으나	老木不知名,
서장의 버드나무와 접목한 것이리라.	雜以西藏柳.
집 떠난 지 며칠이나 되었으랴	去家曾幾日,
진전공궁 그 시종(始終)이 두려워지누나.	兢兢畏尾首.
만일 지금이라도 한번 회포를 푼다면	如今一放懷,
홍하주(紅霞酒)라도 한잔 마셔야 하리니	試酌紅霞酒.
시를 짓고 여정을 기록하여	作詩記程曆,
집 지키고 있는 벗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네.	爲示守堂友. <sup>24)</sup>

시의 전면에는 산에 올라 안동을 굽어보는 그의 내면에 모종의 대망(待望)이 흐르고 있음이 감지된다. 하겸진에게 이곳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곳이 곧 '중화'의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중화의 지기를 다소나마 느낄 수 있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또한 처음 마주한 지역의 생경하고도 평안한 풍경 속의 전가(電舸)는 도시의 활력을 더욱 배가시켜 돌연 떠나갈 날을 걱정하게 만든다. 끝으로 고향의 지우들에게 이곳의 풍경을 서둘러 소개하고 싶다는 구절은 그 만큼 이번 기행에서 그가 얻고 느낀 바가 상당함을 반영하는 글귀이다. 하지만, 안동의 이러한 풍경은 때때로 이곳을 방문한 이들의 내면을 다소 침잠하게 만들기도 했다.

#### 안동현 安東縣

수십 천 년 간 한적하고 광활한 땅이	十數千年間曠地,
오늘날엔 중국 동쪽의 거대한 도성의 관문이라네.	中東今日大都門.
탁 트인 강산에 더해진 구름 연기,	江山平遠雲烟合,

24) 河謙鎮, 『晦峯遺書』 卷3. 참고로 압록강변에 위치한 원보산(元寶山)은 주봉의 해발이 181.8m의 산으로, 정상에서는 압록강변의 풍경과 시내를 동시에 굽어볼 수 있는 장소이다. 학야(鶴野)는 곧 요동으로, 과거 요동 사람 정령위(丁令威)가 학(鶴)으로 변해 고향 땅을 찾아왔던 고사에서 유래했다. 홍하주(紅霞酒)는 신선들이 마시는 술이다.

시내 저자에 온통 늘어져 초목마저 어둡구나.	市衢縱橫草樹昏.
너른 소매 장삼하고 만국에서 찾아오고	方袖長衫來萬國,
화륜과 풍범은 천개의 진돈에서 나온 듯 하다네.	火輪風帆動千屯.
가슴 가득한 회포 쏟아 낼 이 하나 없어	滿腔懷抱無人瀉,
해 지는 강안에서 남몰래 녀 잃고 말았다오.	落日江干暗斷魂. <sup>25)</sup>

위의 시는 경남 합천 출신의 율계(栗溪) 정기(鄭琦, 1878~1950)<sup>26)</sup>가 안동 일대를 방문할 때 창작된 작품이다.<sup>27)</sup> 우선 시는 근대 도회지로 변화한 안동의 공간 묘사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 화륜(火輪)과 풍범(風帆)을 통해 중국 동북지역의 새로운 유통 기지로 거듭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당대 안동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sup>28)</sup> 이러한 안동을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에 일고 있는 여러 감상과 상념들을 함께 토로할 동반 객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미련은 곧 화려한 기행의 이면에 담긴 문객(文客)들의 고독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전환기 한국 지식인에게 안동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의 도시로 각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작품에서 안동은 압록강의 수려한 자연 경치와 넓은 벌판의 아득함을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도 이곳에 철교로 상징되는 근대 문명이 결합된 공간으로 그려졌다. 즉 안동은 옛 고절(孤節)을 간직한 은사(隱士)들의 고사를 품고 있으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융성하고 있는 국제 항구 도시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었다.

25) 鄭琦, 『栗溪集』 卷1.

26) 그의 자는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경희(景晦), 호는 율계(栗溪)이며, 초명은 정재혁(鄭在赫)이다. 노백현(老柏軒) 정재규(鄭載圭)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을사조약 당시 최익현을 도와 동지들을 규합했다. 어지러운 현실을 벗어나 훗날을 도모하고자 1921년~1922년까지 세 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1927년 구레로 이사하여 강학을 통한 후학 양성에 힘썼다.

27) 최두식, 「율계의 기행시와 그의 문학 세계(2)」, 『동방한문학』 15, 동방한문학회, 1998, 226쪽.

28) 김지환, 「安奉鐵道 부설과 중국동북지역 신유통망의 형성」, 『중국사연구』 87, 중국사학회, 2013, 315쪽.

### 3. 옛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고토(故土)이자 고토(孤土): 고려문(高麗門)

이곳은 과거 수·당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륙 패권 경쟁을 했던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토였다. 민족의 역사적 숨결을 품고 있는 이곳에 새로운 인식적 지평이 더해진 것은, 본격적인 사행(使行)이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즉 조선시기 연행록에 등장하는 '고려문(高麗門, 책문(柵門)으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단동 변문진(邊門鎭)이다.)'으로 인해 조선 지식인들의 시선이 모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구련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 사이에 있는 이곳은 조선시대 동아시아의 문물이 오가고 교환되는 국제무역 시장 역할을 했다. 이곳을 다다른 박지원(朴趾源)에게도 책문 일대의 면모는 비범하게 다가왔다. 단정하게 정돈된 주변 포치(鋪置)의 외관과 실용적인 맵시를 본 그는 "이러한 연후에야 비로소 이용(利用)이라 이를 수 있겠다. 이용이 있는 연후에야 후생(厚生)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연후에야 그 덕이 바를 것이다."라며 이 공간을 비범하게 기술하기도 했다.<sup>29)</sup>

하지만 1894년 청일전쟁의 영향으로 연행이 중단되면서, 이곳을 찾는 조선인의 공식 행렬도 종료되고 말았다. 또한 안봉(安奉)철도의 영향으로 이곳을 향하는 발길이 더욱 줄어들면서 이에 고려문 일대는 그저 평범한 공간으로 전락하였고, 과거 변영은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갔다. 이후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안동 일대는 수많은 지사들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분투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는 '고려문'의 존재도 이들에 의해 발견되며 새로운 감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 고려문을 지나며 過高麗門

아침에 사하진에서 떠나  
다시 고려문을 지나누나.

早發沙河鎭,  
更過高麗門.

29) 朴趾源, 『熱河日記』, 「渡江錄」, “周視鋪置, 皆整飭端方, 無一事苟且彌縫之法, 無一物委頓雜亂之形, 雖牛欄豚廄, 莫不疎直有度, 柴堆糞厠亦皆精麗如畫, 嗟乎! 如此然後始可謂之利用矣, 利用然後可以厚生. 厚生然後正其德矣.” 원문과 번역은 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의 번역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1616년 후금이 건국한 뒤, 1619년 명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만주족은 대륙의 패자가 되어 이른바 대청제국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이후 이 일대는 이른바 만주족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인지되어 일종의 '성역화(聖域化)'가 진행되며, 이미 이주했던 한인들의 정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생겼다. 마침내 건륭 5년(1740)년 한인들의 만주 유입을 막는 소위 '봉금'이 시작된다.<sup>34)</sup> 시를 통해 그는 청조의 탄생 이후 한인들의 상황과, 과거 수·당과 맞서 지켜냈던 이 땅이 고구려의 패망 이후 만주족인 여진과 말갈과 함께 개척되었음을 상기하며 역사의 성쇠를 다시금 응시해보고 있다. 다만 이는 식민지가 되어버린 작금의 무기력한 현실을 상기하게 만들어, 이내 더욱 무거워진 내면을 드러내게 된다. 이제 동북을 호령하며 천하를 차지했던 만주족의 청나라가 결국 패망하였지만, 조국의 현실은 이곳을 되찾을 기미는 물론 광복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동행했던 이승희의 시에서도 이러한 일면이 발견된다.

고려문 高麗門

(前略)

산하(山河) 또한 단군의 흔적을 알 것이나  
연화(煙火)는 지금 만주 촌을 이루고 있구나.  
백발노인이 서풍(西風)과 어인 연고 있어  
우리나라의 옛 길 중원에 있게 되었으랴.

山河也識檀王轍,  
烟火今成滿代村。  
白髮西風緣底事,  
吾家舊路在中原。<sup>35)</sup>

1913년 12월, 그는 북경의 공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동삼성한인공교회 승인을 논의하고자 했다. 당시 안동에 머물던 이승희는 “정처 없이 떠돌던 60년 세월, 비로소 이제야 유람을 시작한다오.”<sup>36)</sup>라며 그 소회를 밝혔다. 거주지를 벗어나 비로소 기행을 시작하며 머물고 있던 안동의 진면목을 접한 그

33) 芮大億, 『伊山文集』 卷2.

34)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근본지(根本之地) 만들기」, 『사총』 7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1, 292쪽.

35) 李承熙, 『韓溪遺稿』 卷1.

36) 李承熙, 『韓溪遺稿』 卷1, 「發北京行」, “漂萍六載始今遊.”

는 이곳이 이른바 “가거지(可居地)”라는 것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후에 이 문을 통과하게 된다.<sup>37)</sup> 고려문의 실물을 확인한 이승희 또한 사라진 고려를 증명하는 듯 서 있는 고려문과 이 일대의 황량한 들판을 통해 고대 역사를 회고하며 이곳에서 펼쳐진 한민족의 숨결을 상기해 보고 있다.<sup>38)</sup> 그의 마음이 점차 무거워지는 것은, 지금 그곳은 한민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만주족’의 촌락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9)</sup> 이어 그는 서풍(西風), 즉 서제동점의 시대 속에서 백발이 된 채로 이곳 만주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금 주시하면서 이제 ‘옛것’으로 밖에 기억할 수 없게 된 이 일대를 향한 그의 어지러운 내면을 표출하며 시를 매조지었다.

과거 중화로 진입하는 중요한 관문을 상징했던 고려문은, 이 시기에 이르면 위의 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황량한 들판 속에서 그 형태만을 간직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이곳을 찾은 당대 지식인들은, 초라해진 ‘고려문’을 통해 과거 이곳이 민족의 고토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고구려의 역사를 다시금 소환하여 당대의 민족적 기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식민지가 된 조국의 현실과 대비되면서, 이곳 고려문 일대는 망국의 한과 수심을 더욱 배가시키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 4. 유민(遺民)의 애환과 향수로 점철된 절의의 공간 : 성신태(誠信泰)와 접리수(接梨樹)

한인들에게 당시 안동은 기행의 공간이면서 이주 한인들이 이주하여 새롭게 뿌리내리기 위해 고투하고 있던 ‘삶’의 공간이자 민족 독립을 도모하기 위

37) 李承熙, 『韓溪遺稿』 卷1, 「發北京行」, “山下局勢, 宏濶可居, 似不虛矣, 午歷高麗門, 盖麗代立界通市處.”

38) 李承熙, 『韓溪遺稿』 卷1, 「高麗門」, “麗代無那此有門, 迷茫往蹟野乘閑.”

39) 시에 이어진 산문에서 그는 이러한 소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눈 앞에 보이는 것은 단지 한 쪽은 변발한 만주족이거나 창을 멘 일본 병졸들이니, 전대(前代)의 영향(影響)을 구하고자 해도 그럴 땅이 없어졌도다.”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李承熙, 『韓溪遺稿』 卷1, 「高麗門」, “眼前只見一般辮髮滿族, 一般荷鎗日兵, 欲求前代影響而無地矣.”)

한 '투쟁'의 공간이었다. 이 가운데 유림계 인물들이 집중적으로 집결한 장소는 바로 국내와 대륙을 연결하는 중간 기지와도 같았던 복합 상점 '성신태'<sup>40)</sup>와 한인들의 새로운 집결촌이었던 '접리수'<sup>41)</sup>였다. 초기 이 두 공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이곳을 찾는 인사들의 주요 거점이자 거소(居所)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동전(東田) 맹보순(孟輔淳, 1862~1933)<sup>42)</sup>과 소눌(小訥) 노상직(盧相稷, 1854~1931)<sup>43)</sup>이 있었다. 하여, 이 두 장소는 지역의 땅에서 한인 문인들이 상봉하는 주요 거점이 되었고, 동시에 말로는 다할 없는 마음속 감정을 시를 통해 주고 받는 문학 창작 공간이 되었다.

처음 이곳에 당도한 상당수의 인물들은 숙소와 상가가 결합된 성신태에 묵는 일이 잦았다. 그곳에서 고국의 인사들과 해후하고 또 안동 일대를 유람하기도 했으며 구체적인 이주 장소를 물색하였다. 또한 1912년 12월 안동으로 건너온 노상직이 남긴 「성신태」(『小訥集』 卷3, 「辛亥記行」)를 보면 그곳에 머물던 한국 유림들은 당시의 중국 인사들과도 교류하며 현지의 사정을

40) 성신태(誠信泰)는 1911년 4월 김학조(金學祖)·맹보순 등이 당시 안동현에 세운 상점이었다. 대략 이곳은 상점과 여관 기능이 더해진 객잔이었는데, 이주 한인들의 임시 숙소로 활용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의 회합장소로도 자주 이용되었다. 성신태의 설립과 주요 인물 그리고 역할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 자세하다. (서동일, 「1910년대 중국 안동 성신태 상점 설립과 독립운동 지원」, 『사림』 56, 수선사학회, 2016, 163~200쪽.)

41) 당시 안동 일대로 이주한 국내 유림들은 일제의 강제지배를 벗어나, 유학자로서의 본분과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이주가 많았다. 수의(守義)의 터전으로 생각하며 이곳에 방문한 여러 유림들은 이곳에서 다시 회합하여 조국의 독립과 유도의 부흥을 동시에 꾀했고 이주지를 본격 탐색했다. 그리하여 1911년 즈음을 기점으로 안동에는 한인 집거촌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안동 접리수(接梨樹)였다. 노상익·노상직·이승희·안효제·이건승·맹보순 등의 유림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활동하며, 독립운동기지와 한인공동체 구축에 진력했다. (서동일, 앞의 논문, 2015, 293쪽.)

42) 그는 진천 출신으로 용인지역 활동했는데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당시 기호지방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1910년 안동현으로 이주하여 이후 독립운동기지 역할을 한 성신태라는 상점을 세워 운영의 주축이 되었다. 1919년 고종의 서거로 인해 귀국하였고 이후 파리장서 운동을 전개할 때 그 역시 동참했으며 이후에는 서원을 세워 후학을 양성했다. (박성순, 『孟輔淳의 東田文集 편찬과 잊혀진 獨立運動史』, 『동양고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016, 187~219쪽.)

43) 김해 출신의 그는 성재 허전의 문인으로 1910년 서간도로 이주했다. 1913년 귀국한 뒤 교육 사업에 종사했고 파리장서운동 당시 김해 유림 대표로 서명했다. 이후 형과 함께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다. (이영숙, 「小訥 盧相稷의 현실 대응 양상에 대한 考察」, 『동양한문학연구』 61, 동양한문학회, 2022, 5~34쪽.)

듣고 그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확인된다.<sup>44)</sup>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아래의 작품은 성신태라는 공간에서 재중 유림과 해후했던 국내 유림의 내심을 짐작하게 만든다.

성신태의 교리(校理) 노 형제(상익과 상직)를 방문하다.  
誠信泰訪盧校理兄弟(相益相稷)

만리 표종(漂蹤)에도 마음은 같았기에	萬里漂蹤思一般,
흰 머리하고 말없이 눈물만 떨구는구려.	白頭無語淚洶瀾.
황하에 들어온 방숙도 도리어 생각이 많았을지니	入河方叔還多意,
이야기가 고향 산에 이르자 촛불 그림자도 찾아드누나.	話到鄉山燭影殘. <sup>45)</sup>

위는 1912(壬子)년 성신태에 방문하여 동지와 같았던 두 형제와 상봉한 성주 출신의 공산(恭山) 송준필(宋浚弼, 1869~1943)의 작품이다. 그는 만 리를 떠도는 현실에서도, 변하지 않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어 결국 이역에서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상기할수록 서글프고 애련해져 서로 눈물만 떨구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어 난세를 피해 은거를 택했던 과거 방숙(方叔)의 고사를 소환하여 그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과 번민에 빠졌고, 또 다시 도를 회복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심히 간절할 것임을 헤아리며 심심한 위로를 건네고 있다. ‘잔영(影殘)’ 역시 형제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시어인데 향수에 애달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으면서, 그 장면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작자의 내면 또한 담고 있다.

만남의 기쁨과 기쁨에만 머물 수 없는 현실 속의 참담함의 교차는 다음의 시에서도 대동소이 했지만 다소 다른 결말의 면모를 보였다.

44) 이희목, 앞의 논문, 2007, 536쪽.

45) 宋浚弼, 『恭山集』 卷2, 「北征諸詠」. 참고로 방숙은 중국 주(周)나라 때의 隱士이다. 주나라가 쇠하며 세상이 혼미해지자 악사였던 그는 황하를 건너 은둔하며 지냈다. (『論語』, 「微子」, “大師摯適齊, 亞飯干適楚, 三飯繚適秦, 四飯缺適秦, 鼓方叔入於河.”)

요동 취보가(聚寶街)에서 동전 맹보순에게 드리다.

遼東聚寶街贈孟東田溥淳

멀고 먼 선관(仙館)에서는 꿈속 영혼마저 쓸쓸하니	仙館迢迢冷夢魂,
유유자적 하는 신세는 뜬 구름과 같구나.	悠悠身世等浮雲.
산천의 밤은 적막한데 선사(禪事)도 막혔고	山川夜寂封禪事,
세상에는 책 태우던 연기마저 사라져 버렸네.	宇宙煙消竹帛文.
난세를 피해 몇 년 간 북쪽 바다에 머무셨는데	避世多年居北海,
관을 걸어두고 어느 날 동문을 나와 고향에 가리오.	掛冠何日出東門.
원하노니, 서쪽 인근의 두실와옥(斗室蝸屋) 같은 것 빌려	願借西隣如斗屋,
그대와 더불어 함께 무릉촌이나 만들었으면 한다네.	與君同作武陵村. <sup>46)</sup>

시는 기행을 기행 그 자체로 즐기지 못한 채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성신태에 머물고 있던 이도복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당시의 현실은 '분서갱유'의 상황처럼 암울한 것으로, 조선 유교의 계승과 부흥은 사실 기약하기 어려운 것으로 다가온다.<sup>47)</sup> 다만 그는 이 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즉 그 역시 먼저 이주한 맹보순의 뜻에 동참하여 이곳에 머물며 남은 생을 지내볼 생각에 잠겨 본 것이다. 시에 나타난 것처럼 성신태는 이역 산하에서 마주하게 된 조국 인사들을 향한 반가움과, 그러한 상황에 놓일 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회한이 서로 겹치고 중첩되어 포개지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암울한 현실을 피해 '중화(中華)'의 땅을 찾아온 '재중 유림'과, 이주를 도모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러 온 국내 유림의 복잡다단한 내면이 서로 교차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동시에 이주에 대한 결심을 통해 난세의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공간이기도 했다.

안동현에서 사간 맹보순과 정약 권병하와 함께 짓다

安東縣與孟士幹輔淳權丁若丙夏共賦

세인들은 우리를 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하고 있었으니 人無求我我人求,

46) 李道復, 『厚山集』 卷2. 溥는 輔의 오기로 판단된다.

47) “宇宙煙消竹帛文”은 다음의 시에서 차용한 것이다. (章碣(唐), 『全唐詩』, 「焚書坑」, “竹帛煙消帝業虛, 關河空鎖祖龍居.”)

장(醬) 널린 푸죽간을 얼마나 가벼이 떠돌았었나.	醬博屠門幾俠流.
은 나라에 또한 한가한 태평세월 없어졌는데	萬國且無閒日月,
삼한 땅에서 춘추를 읽을 자 누가 있으리오.	三韓誰有讀春秋.
성공이란 임시방편으로 얻음에 있지 않고	成功不在臨時獲,
애써 오랫동안 머물며 도모함을 마땅히 따르는 법.	着力宜從久處謀.
우리들의 머리 앞에 어떤 사업이 있겠소,	吾輩前頭何事業,
제갈량처럼 몸 굽혀 힘쓰를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리라.	鞠躬諸葛死無休. <sup>48)</sup>

함안 출신의 일헌(一軒) 조병택(趙昺澤, 1855~1914) 또한 난세를 피해 서간도 일대로 이주를 염두하며 1910년 1월 압록강을 건너 안동현과 회인현(懷仁縣) 일대를 살펴보고 돌아갔다.<sup>49)</sup> 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당시 국내에서 자신들의 유교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남은 그의 삶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며' 묵묵히 유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sup>50)</sup> 게다가 이민족의 강제지배가 가시화 되자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국내에서의 유람은 그저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도문대작(屠門大嚼)'<sup>51)</sup>과 같은 것이 되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그가 선택한 것은 위의 내용처럼 그곳에 오래 머무르며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중국행을 택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 그는 이제 조국은 춘추대의를 논할 수 있는 땅이 되지 못함을 언급하며 이곳으로 건너와 함께 대의를 지키고 전승하려는 뜻을 다시금 피력했다.<sup>52)</sup> 사실 이는 자신의 뜻이면서 함께 수창한 두 사람의 의지이자 신념이기도 했다. 그것은 결코 설 수 없는 것이기에 필히 전승할 의

48) 趙昺澤, 『一軒集』 卷2. 조병택은 함안 출신으로 만성(晩醒) 박치복(朴致馥, 후산(后山) 허유(許愈) 등과 교유했다. 경술국치 이후 이주를 도모하며 1910년·1913년 중국을 방문했다. 권병하(權丙夏, ?~?)는 경성 출신으로 한계 이승희의 동삼성한인공교회 활동에 동참했다.

49) 한길로, 「일헌 조병택의 「서정일록」 연구」, 『인문학연구』 6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313쪽.

50) 『論語』, 「學而」,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51) 도문대작(屠門大嚼)은 실제로 얻을 수 없지만 이미 획득한 것처럼 상상하고 만족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위(魏)나라의 조식(曹植)에 작품에서 기인했다. (『文選』 「與吳質書」, “過屠門而大嚼, 雖不得肉, 貴且快意.”)

52) 실제로 그는 1913년 다시 한 번 중국을 방문하며 이 뜻을 실현하려고 했으나 결국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그의 부해의 꿈도 좌절되었다.

지를 드러내보지만, 그것이 어수선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현실과는 불화하는 것임이 감지되기에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안동을 방문한 이들이 동료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접리수'를 방문할 때의 감정은 더욱 격동적이었다. 비록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은 비교적 편한 일이었지만,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국경 밖의 생경한 지역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겸진·조병택의 예처럼 먼 행로에 발병이나 제대로 기행을 즐기지 못한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여정의 고단함은 곧 이곳에서 직접 지내고 있는 동지들의 노고와 간난한 삶을 더욱 추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했다. 1913년 가을 중국 기행에 나선 뒤 고향 의령에서 동문수학 했던 지우인 안효제를 찾아온 울산(栗山) 전상무(田相武, 1851~1924)의 기록은 그 때의 만남과 이별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sup>53)</sup>

“(10월)9일 식후, 접리수에 있는 수찬(修撰) 안효제의 우소를 방문했다. 우리는 천애의 군우(君友)였는데 환회에 경도된 것도 못 느낀 채, 정과 회포를 모두 쏟아내느라 시간 가는 것도 몰랐다. (…중략…) 이들 모두는 황무지에 들어와 몸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 고국 사람을 보고 자못 다투어 끌고 집으로 돌아가 고향의 사정을 물었다. 서로 시사를 토론할 때는 개연히 ‘망국의 통루(痛淚)<sup>54)</sup>를 흘리며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중략…) 이튿날 억지로 작별인사를 고하고 귀향길에 올랐다. 떠나는 자와 남아있는 자 각기 서러워 서로 아쉬움을 누를 길 없자 연시(聯詩)를 한 수 지어 송별하였다. 수파 혼자 안동부까지 따라 내려와 하룻밤의 뜻을 펼치고 서로 헤어졌으니 바로 동향(同鄉)의 우의였다.”<sup>55)</sup>

53) 1911년 11월 압록강을 건넌 안효제는 최초 류하현에 정착하였으나 그곳에서 도적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생겨 이거를 고민했다. 이후 안동현에 있던 노상익에게 편지를 받고 그 역시 안동으로 이주할 것을 결심하여 1912년 9월 안동으로 이주한 뒤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은영, 앞의 논문, 2011, 422~444쪽.)

54) 본문은 “新亭之淚”이다. 서진(西晉) 말년에 중원(中原)이 함락되자 많은 이들이 강남(江南)으로 피난을 갔는데, 신정(新亭)에서 신하들이 서로 마주하며 함께 통곡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晉書』卷65, 「王導列傳」)

55) 田相武, 「西行日錄」, 『栗山集』卷3, “九日食後訪修撰安孝濟於接梨寓所, 俱是天涯君友, 不覺驚倒歡喜, 寫盡情懷, 不知日是. …(中略)… 俱是窟身投荒之人, 初見故國之人, 頗有競引還家, 問鄉邑之風焉. 相與討論時事, 概然下新亭之淚, 至夜不寐焉. …(中略)… 翌日強辭歸鄉, 去留各悵, 不忍相捨, 題一聯詩留別焉. 獨守坡隨下安東府, 更敘一夜之情而相分, 果同鄉之誼也.” (참고로 번역은 권대웅, 『울산 전상무의 독립운동』, 선인, 2022을 참조했다.)

이렇듯, 이곳 접리수는 이주를 택하여 고향을 지키고 있던 인물들과 그곳을 방문한 국내 인사들이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상봉했다가 회한을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는 공간이 되었다. 더욱이 다시 상봉할 날을 기약하는 것도, 또 조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일도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내면에는 만남의 기쁨보다는 당시의 현실에 대한 통탄과 헤어짐의 애통이 더욱 강하게 진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망국의 통탄이 그들 내면에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지 또한 가늠하게 만든다.

하지만 진하게 표출된 이들의 답답하고 침울한 마음은 단순한 한탄과 탄식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그것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것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신념과 이주의 목적을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굽히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양자 간의 신뢰의 이면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그 속에는 그렇게 서로를 위안하고 격려하며 급변하는 당시의 정세와 상황에 부단히 대응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던 것이다.

원보산 아래의 노상익과 안효제 두 학사를 방문하고는 서로 감개하며 눈물을 쏟았다. 각기 시 한절을 써 세한의 뜻을 표했다.

元寶山下訪盧相益安孝濟兩學士，相與感慨涕泣，各贈一絕以示歲寒之意

땅이 병들고 하늘도 황한데도 세월은 더디 가나니	地老天荒歲月遲，
절의 신하 죽지 못했으니 또한 무엇을 하겠는가.	孤臣不死亦何爲。
백이·숙제의 옛 나라엔 도리어 고사리 있기에	夷齊古國薇猶在，
이곳에 남아 여생 동안 다 먹었으면 한다오.	留待餘年喫盡時。 <sup>56)</sup>

인용한 시는 1913년 4월, 지우 서천(西川) 조정규(趙貞奎, 1853~1920)·일헌 조병택과 함께 북경기행을 나선 물와(勿窩) 김상옥(金相頊, 1857~1936)의 작품이다.<sup>57)</sup> 시제에 드러난 것처럼, 당시 이곳을 지나던 인사들은 현지에 머물던 이주 한인들과 회합을 시간을 갖고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속내를 드

56) 金相頊, 『勿窩集』 卷1. 이 시는 노상익에게 건넨 시이며 시어 “地老天荒(혹은 天荒地老라고도 한다.)”은 천지가 개벽할만한 긴 시간을 이른다.

57) 한길로, 『물와(勿窩) 김상옥(金相頊)의 「중주기행(中州記行)」 고찰』, 『석당논총』 8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1, 73쪽.

러냈었다. 이역의 산하에서 어렵게 만나 서로 눈물을 흘리던 순간이 지나자, 작자는 자신의 마음에 일렁이는 깊은 회한을 다시금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유학 전통이 하루아침에 전복된 것과 같은 시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 모두의 심정은 동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상옥은, 이들이 이제(夷齊)의 절의가 간직된 수양산 인근에서 살고 있음을 부각하며 그들의 이주 또한 죽음을 불사한 고의(高義)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냈다.<sup>58)</sup> 이는 동시에 척박하고 거친 이역에서 생활하며 '세한(歲寒)'의 뜻을 이어가는 그들의 노고와 통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면서 결토(潔土)의 땅에서 함께 머물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뼈아픈 회한이기도 했다.

조·정 두 형이 접리수의 학사 안효제를 방문하였다.  
 나는 족질(足疾)로 가지 못하여 시를 지어 뜻을 전했다.  
 鄭趙二兄訪安學士孝濟於接梨樹，余以足疾未往，賦此寄意

바다를 임한 지조와 절의는 단사(丹砂)처럼 빛나시니	臨瀛志節炳如丹，
요좌에서 진실로 관유안(管幼安)이 되셨네요.	遼左眞成管幼安。
여행 중에 병에 막혀 배면(拜面)이 어긋났나니	病滯旅中違拜面，
푸름 구름 빛 머금고 강 난간을 지나갑니다.	碧雲銜照過江欄。 <sup>59)</sup>

푸른 구름, 즉 벽운(碧雲)<sup>60)</sup>은 안효제를 직접 대면하고 싶은 그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어(詩語)이면서 동시에 발병으로 가지 못하는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시에 묘사된 것처럼, 여러 국내 유림들이 은거해 있는 접리수 일대는 “지절(志節)”로 표상되는 장소였다. 하겸진은 상술한 관영(管寧)이 요동으로 건너와 그곳에서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며 수많은 백성들을 교화한 예를 거론하고 있다. 즉 작자는 국내 유림의 안동 이주

58) 백이·숙제에 대한 언급은 전주(轉句)의 시주(詩注) “地理誌云孤竹城，在遼西令支縣。”에서 밝혔다.

59) 河謙鎮, 『晦峯先生遺書』 卷3. 참고로 1913년 그와 동행한 인물은 조효근(趙孝謹)과 정윤경(鄭允卿)이었고 유안(幼安)은 관영의 자이다.

60) 남조(南朝) 양(梁)의 시인 강엄(江淹)이 지은 「혜휴상인원별시(惠休上人怨別詩)」에 “日暮碧雲合，佳人殊未來。”라는 구절이 있다. 즉 벽운은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뜻한다.

를 중국의 고사의 예와 비견하며 그들의 내면 역시 중국의 현인들의 행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며 경의를 표한 것이다. 즉, 하겸진은 다난한 현실 속에서도 그 뜻이 지속되어 전승되기를 바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하며 만남이 불발된 아쉬운 마음을 대신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10~1920년대 한시 속에서의 안동은 한인들이 처음 마주하는 이역 중국의 풍경을 담고 있는 흥미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고토로 표상되고 있었다. 더불어 이곳은 이산자를 자처하며 중국으로 이주한 재중 유림들이 결집하는 공간이었고 또한 우국과 향수로 점철된 그들의 ‘한(恨)’이 새겨진 애환의 장소로 표상화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이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지지와 연대의 의지가 그 이면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즉 이 시기 안동은 유학의 보수를 위한 근대기 한국 유림의 절실함이 결집되고 또 식민지의 어두운 현실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려는 그들의 일념이 모였던 장소로, 분명 유의미한 한국 유학 및 한국 문학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근대전환기 단동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한인들의 출입도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1910년 이른바 을사조약이라는 미증유의 난세를 만난 국내 유림들의 출입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이는 근대기 유림이 보여준 유의미한 현실 대응이자, 처음으로 시도된 절박한 ‘도전’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단동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탄생된 한시 역시 상당 부분 증가하였다. 과거 오랜 기간 봉금 상태에 놓여있던 이곳은 ‘압록강 철교’로 상징되는 근대 도시로 변모했는데, 한시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한시의 주요 창작 공간 중 한 곳은, 과거 이곳이 한민족의 고토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려문’이었다. 고려문은 과거 한민족의 고대사를 다시금 회고하게 만들었고 황폐해진 공간에 이름만 남기고 내

던져진 듯 보이는 모습에서는 작금의 무기력한 현실을 상기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었다. 이들에게 단동은 매우 화려하면서도 또한 진한 역사적 회한을 던져주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 안동 지역을 배경으로 창작된 한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간은 '접리수'라는 장소였다. 이곳에서 창작된 한시들은 이주를 통해 절의를 지키고 조국의 독립을 도모해 보려던 재중 유림과 국내 유림과의 만남에서 파생된 두 인물 사이의 복잡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곳을 찾은 국내 유림들은 재중 유림들의 지향을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숭고하게 인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그들을 위로했고, 그곳에 직접 몸을 옮기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려는 면모도 발견 되었다. 즉 소위 '절의'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들의 통한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마음 속 고뇌의 짐을 함께 들어 보려는 의지 또한 포착된 것이다. 또한 이들의 이별을 담고 있는 작품들은, 이 시기 해외 도처에서 이뤄지고 있던 한인들의 '이역에서의 회합과 재(再)이산'의 장면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요컨대 20세기 초, 단동을 배경으로 창작된 한시에는 '해외체험 혹은 이주'라는 선택을 통해 유교 및 한학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전승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피력되어 있었다. 특히 이른바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문학적 면모와 서정을 담으면서, 자발적으로 '이산인'을 선택한 재중 유림의 내면과 국내 유림과의 관계망까지 확인하게 만들었다. 특히 단동에서의 이와 같은 경험은 곧 '국내와 재중' 유림의 결속을 기인하며 1914년 이후 심양으로의 집단 이주로 이어졌는데, 결국 한국 유림의 더 큰 역량의 결집을 견인하였다.

단동과 같은 재외지역에서 창작된 한시는 한문학의 영토를 확장하면서도, 당대인의 특수한 시정(詩情)과 내면을 담고 있는 근대기 한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들은 단동이라는 공간이 한국과 매우 밀접한 중국의 한 도시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 20세기 초 한국한문학의 공간이자 근대기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의 거점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향후, 한반도라는 경계를 벗어나 이 시기 재외지역에서 창작된 한문학 작품에 대한 발굴과 그 의의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기약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金相頊, 『勿窩集』, 李道復, 『厚山集』, 李承熙, 『韓溪遺稿』, 芮大億, 『伊山文集』, 朴趾源, 『熱河日記』, 田相武, 『栗山集』, 鄭琦, 『栗溪集』, 趙昺澤, 『一軒集』, 河謙鎭, 『晦峯先生遺書』; 『晦峰先生年譜』.

### 2. 논저

- 권대웅, 『울산 전상무의 독립운동』, 선인, 2022.
- 김기주, 「회봉 하겸진의 학문 활동과 성리학적 특징」, 『한국학논집』 7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 김지환, 「安奉鐵道 부설과 중국동북지역 신유통망의 형성」, 『중국사연구』 87, 중국사학회, 2013.
- 김진균, 「식민지시기 京鄕 한학자들의 교유」, 『한문학논집』 60, 근역한문학회, 2021.
- 박성순, 「孟輔淳의 東田文集 편찬과 잊혀진 獨立運動史」, 『동양고전연구』 65, 동양고전학회, 2016.
- 서동일, 「1910년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접리수 한인촌 형성」, 『한국사연구』 171, 한국사연구회, 2015.
- \_\_\_\_\_, 「1910년대 중국 안동 성신태 상점 설립과 독립운동 지원」, 『사림』 56, 수선사학회, 2016.
- 신규식, 김동훈 외(편), 『신규식 시문집』, 민족출판사, 1998.
- 윤병석, 「요좌기행 해설」, 『사학지』 8, 단국대학교 사학회, 1974.
- 이영숙, 「小訥 盧相稷의 현실 대응 양상에 대한 考察」, 『동양한문학연구』 61, 동양한문학회, 2022.
- 이은영, 「수파 안효제의 서간도 망명과 우국시」, 『한문학보』 25, 우리한문학회, 2011.
- 이성형, 「燕行詩에 나타난 ‘東八站 區間’ 認識樣相 考察」, 『漢文學論集』 35, 근역한문학회, 2012.
- 이철성, 「조선 후기 鴨綠江과 柵門 사이 封禁地帶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이 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근본지지(根本之地) 만들기」, 『사총』 7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1.

이희목, 「소눌 노상직 한시 연구: 「신해기행(辛亥記行)」을 중심(中心)으로」, 『한문학보』 17, 우리한문학회, 2007.

최두식, 「울계의 기행시와 그의 문학 세계(2)」, 『동방한문학』 15, 동방한문학회, 1998.

한길로, 「물와(勿窩) 김상옥(金相頊)의 「중주기행(中州記行)」 고찰」, 『석당논총』 8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1.

\_\_\_\_\_, 「일헌 조병택의 「서정일록」 연구」, 『인문학연구』 6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丹東市民族宗教事務委員會民族志編纂委員會(編), 『丹東朝鮮族志』, 遼寧民族出版社, 2001.

### 3. 기타 자료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 검색일: 2023.06.19)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검색일: 2023.06.19.)

한국역사정보통합사이트

(<https://www.koreanhistory.or.kr>, 검색일: 2023.06.19.)

<Abstract>

## A Study on the Main Space and Poetic Representation of China's 'Dandong' in Modern Chinese Poetry - Focusing on the 1910s and 1920s -

Han, Gil-Ro

This paper examined the Chinese poetry works created in Dandong, China in the modern era, and analyzed the image and representation of Andong contained in the works. To this end, first, the main space where the work was born was divided into 'Andong panoramic view, Goryeo Gate(高麗門), and Sung Shin-tae(誠信泰) that complex store·Joplisu(接梨樹)'. It was the 'Apruk River(鴨綠江) Railroad Bridge' that attracted the attention of Koreans in the view of Dandong. Korean writers who saw the Yalu River Railway Bridge, located in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Yalu River, felt the power of Western technological civilization and described Dandong as a dynamic modern port city. In addition, 'Goryeo Gate' there made us look back on the ancient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and also served to remind us of the current lethargic reality. During this period, a Korean village began to be established in Dandong, writers who visited China also visited the Representative Korean village 'Joplisu' and met with people from their homeland. They also visited the 'Sung Shin-tae'. In the poem, complex emotions were expressed from meetings with Korean Confucian scholars who stayed in this area to protect their beliefs and promote their country's independence. This was a will of encouragement and empathy for comrades living in this area. Their poems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well expressed their subjective emotions and reflected the specificity of the times. Poetry was a meaningful achievement and noteworthy aspect of Modern Korean Chinese literature.

\* Key Words: Dandong, Goryeo Gate, Sung Shin-tae, Joplisu, Modern Korean Chinese Literature

· 논문투고일: 2023년 6월 12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11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25일